

‘굴봉정찰토(掘峰頂撮土)’ 행위로 본 〈구지가〉의 성격에 대한 재고

박재민*

- I. 서론
- II. <구지가>는 노동요인가?
- III.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상대가요의 하나로 잘 알려진 <구지가>의 성격에 대한 재론을 담고 있다. 그간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는 <구지가>를 ‘주술요’로도 보고, 동시에 ‘노동요’로도 보고 있었다. 이 노래를 주술요로 본 것은 기원의 말을 담고 있고, 실제로 노래를 부른 이후에 신이한 일이 벌어진 까닭이고, ‘노동요’라고도 보는 이유는 배경설화에서 나온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란 구절 때문이었다. 기존의 해석에 따를 때 이 구절은 ‘산꼭대기의 흙을 파다’ 혹은 ‘산꼭대기를 파고 흙을 모으다’로 해석되었다. 흙을 파거나, 흙을 모으는 행위에서 노동의 현장을 상징하였던 것이고 그에 기반하여 <구지가>가 노동요일 가능성을 제기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찰토(撮土)’가 대규모의 흙을 쌓는 행위가 아닌, ‘향로를 대용할, 향로 크기의 한줌 흙더미를 모으는 행위’임을 밝혀 이 동작이 노동이라 부를 만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였다. 이를 문증하기 위해, 중국의 여러 문헌에 나타난 “찰토(撮土, 한줌 흙더미를 모으)” + “분향(焚香, 향을 사름)” + “기원”(祈願, 기원의 말을 함)의 관용적 행위를 살폈고, <구지가> 또한 이에 정확히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부교수

부합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가 <구지가>의 ‘노동요’적인 성격을 시사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주술요’임을 강화시키는 화소(話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구지가, 노동요, 주술요, 찰토(撮土),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 기우(祈雨)

1. 서론

<구지가(龜旨歌)>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의 <가락국기(駕洛國記)>에 실려 전하는 4행의 짧은 노래로, 우리 문학사의 여명기에 등장한 가장 오랜 노래 중의 하나이다. 그런 까닭에 <황조가(黃鳥歌)>,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와 함께 이른바 상대가요(上代歌謠)로 분류되어 항상 문학사 기술과 국문학 교육의 첫머리에 자리해 있다.

이 작품을 연구하고 교육할 때 우리가 늘 유의하고 있는 세 지점은 1) 노랫말의 상징성, 2) 노래의 성격, 3) 노래의 구조 및 관련 작품의 소개라 할 수 있다. 노랫말의 상징성이란 “이 노래에 등장하는 ‘거북[龜]’과 ‘머리[首]’는 무엇의 상징인가?”에 대한 것이고, 노래의 성격이란 “이 노래의 주술요 혹은 노동요로서의 성격”에 대한 것이고, 노래의 구조 및 관련 작품이란 “이 노래와 유사한 구조를 지닌 <해가(海歌)>와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 세 사항은 거의 공식화된 것이어서, 고등학생을 위한 교과서에서도, 대학 전공자를 위한 교재에서도, 전문 연구자를 위한 연구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기술되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노동요’와 ‘해가’ 등의 밑줄은 필자가 임의로 기입함.)

《자료 1. 고등학생을 위한 교과서!》

‘거북’과 ‘머리’의 상징적 의미

… ‘머리를 내어라’는 현군의 출현과 풍년을 기원하는 고대인들의 열망이 나타난 것이며, 여기에서 ‘거북’은 가락국 백성들이 섬기는 신령스러운 존재, 즉 토렘(totem: 신성하게 여기는 동식물 또는 자연물)으로 볼 수 있다.

‘구지가’의 성격

이 노래를 주술요로 보는 견해, 노동요로 보는 견해 …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단서		성격
무엇인가를 염원하면서 불렀고, 그 염원이 이루어졌다.	⇨	주술요
3월 계육일(禊祓日)에 여럿이 흠을 파면서 불렀다.	⇨	<u>노동요</u>

‘구지가’와 ‘해가’

신라 성덕왕 때 해룡에게 끌려간 수로 부인(水路夫人)을 구출하기 위해 불렀다는 ‘해가(海歌)’는 가사의 뜻과 표현 형식이 ‘구지가’와 매우 유사하다.

《자료 2. 대학 전공자들을 위한 전공 교재²⁾》

- (1) 작품의 시어: ‘거북[龜], 머리[首]’를 한자어의 의미 또는 음차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 (3) 성격: “흠을 파 모으면서[掘峰頂擧土] 이렇게 노래하라.”에서 행위적 측면에서 노동요, 결과적 측면에서 영신군가 또는 주술요 등이 제기되었다.
- (4) 작품의 형성과 전승: 이 노래가 가락국 건국시기에 창작되어 <해가(海歌)>까지 전승되었는지, 그 이전부터 전승되다가 수로왕 탄생 시기에 불리고 그 이후까지 전승되는지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자료 3. 학계 연구자들을 위한 학술 서적³⁾》

II. 本論

1. 『거북』과 『거북의 머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2. 왜 威嚇的 言辭를 사용했는가?
3. 『掘峰頂擧土』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1) 강승원 외, 『고전운문』, 『해법문학』(2009개정교육과정), 천재교육, 2016, 29면.
 2) 김명준, 『생각하며 읽는 한국 고전시가』, 도서출판 다운샘, 2018, 14면.

연구와 교육의 현장에서 거의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이 사항들은 민족 문학의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구지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나아가 민족 문학의 첫 모습을 통일성 있게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음에 분명하다. 신비로움을 지닌 거북을 호명한 후 “머리를 내 놓으라”고 집단적으로 가무(歌舞)하는 데서 무언가 아득하면서도 강력한 원시인의 욕망의 발현 방식을 보게도 되고, 노래의 성격이 노동요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작은 실마리 하나 놓치지 않는 학자들의 예리한 분석법에 감탄하게도 되고, 이 노래와 구조가 거의 동일한 노래가 통일신라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 민족 주술(呪術)의 강력한 전승력 및 공식구조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구지가>는 책의 첫머리에 등장하여 다양한 문학사적 요소들과 연결되면서 국문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근래 몇 년간 학기 초마다 학부생들에게 <구지가>를 강의하면서 위의 요점들에 대한 약간의 의구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노동요’라고 파악하는 것은 주지하다시피 ‘굴봉정찰토(掘峰頂撮土)’라는 구절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결과인데 이 행위를 과연 ‘집단의 노동’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의구가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찰토(撮土)’의 용례를 검토해 보노라면 아무래도 이 행위는 ‘집단의 노동 행위’와는 관련될 수 없음을 본다.

II. <구지가>는 노동요인가?

1. ‘노동요’ 설의 수립 경위

서론에서 보았듯이 현행 교육과 연구에서 <구지가>를 노동요로도 보고 있는데, 이의 효시는 해방 무렵에 나온 조운제의 『국문학사』의 다음 언급으로 보인다.(밑줄은 필자)

3) 김성연, 「구지가의 해석」,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82~90면.

詩歌는 또 勞働에서부터도 發生한다… 九干等이 掘峰撮土의 勞働을 하면서 그 勞働의 괴로움을 減少하고자 龜何龜何의 노래를 부른 것이다. … 如何든 朝鮮의 詩歌는 祭天中心의 宗教儀式에서 또 勞働에서 發生하였다는 것만은 숨길 수 없는 事實인것같이 생각이 된다.⁴⁾

그가 이 노래를 노동과 연관지은 것은 <구지가>의 배경설화에 나온 ‘굴봉정찰토(掘峰頂撮土)’라는 구절 때문이었다. 구지가의 배경 설화⁵⁾에는 하늘의 목소리가 “너희들은 모름지기 ‘굴봉정찰토(掘峰頂撮土)’하며 노래를 부르라(你等須掘峰頂撮土歌之)”고 명령하는 구절이 있는데, 조운제는 이 ‘굴봉정찰토(掘峰頂撮土)’를 (“너희들은) 이 봉두(峰頭)의 흙을 파헤치면서⁶⁾로 풀이한 후, 집단적 노동 행위로 보았던 것이다. 그의 견해는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다음과 같은 언급들은 이를 계승한 것이라 하겠다.(밑줄은 필자.)

박지홍[1957] 龜旨歌에서 흙을 판다든가, 海歌詞에서 막대로 언덕을 치는 것은 모두 가래질 타작질을 시능한 農夫의 動作을 노래한 것⁷⁾

4) 조운제, 『국문학사』, 동방문화사(東邦文化社), 1949, 15~16면.

5) 간략히 발췌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북쪽 구지(龜旨)에서 이상한 소리가 부르는 것이 있었다. 백성 이삼백 명이 여기에 모였는데 사람의 소리 같기는 하지만 그 모습을 숨기고 소리만 내서 말하였다. … “황천(皇天)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가서 나라를 새로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여 이런 이유로 여기에 내려왔으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굴봉정찰토(掘峰頂撮土)’하고 노래를 부르기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라고 하고, 뛰면서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뛰게 될 것이다.”

구간들은 이 말을 따라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러러 쳐다보니 다만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서 땅에 닿았다. 그 줄이 내려온 곳을 따라가 붉은 보자기에 싸인 금합을 발견하고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 알 여섯 개가 있었다. … 그 달 보름에 왕위에 올랐다.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首露)’라 하였다. (所居北龜旨 有殊常聲氣呼喚 衆庶二三百人集會於此, 有如人音隱其形而發其音曰. … “皇天所以命我者 御是處惟新家邦爲君后, 爲茲故降矣, 你等須掘峰頂撮土歌之云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以之蹈舞. 則是迎大王歡喜踴躍之也.” 九干等如其言咸忻而歌舞. 未幾仰而觀之, 唯紫繩自天垂而着地. 尋繩之下乃見紅幅裝金合子開而視之, 有黃金卵六圓如日者. … 其於月望日即位也. 始現故諱首露.) <『삼국유사』 권2, 『가락국기(駕洛國記)]>

6) 조운제, 위의 책, 16면.

7) 박지홍, 『龜旨歌 研究』, 『국어국문학』 제16집, 국어국문학회, 1957, 15면.

이가원[1973] 그들은 神의 神聖함을 強調하기 위하여, 이 노래를 지어 龜旨峯을 中心으로 흠을 파는 수많은 愚昧한 農·漁父들에게 指示, 불리었던 것이다.⁸⁾

조용호[2010] ‘掘峯頂撮土’ 즉 ‘봉우리 꼭대기에서 약간의 흠을 파는 것은 곡식의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가는 일을 모방하는 연극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⁹⁾

그런데 문제는 이 주장들이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의 ‘[掘과다]’에만 주목하여 ‘집단적으로 땅을 파는 것이니 노동’이라는 소박한 인식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래의 성격이라는 것은 그 노랫말에서 직접 추출할 수 있거나, 배경 설화에서 그것을 유추하여 추출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구지가는 노동요이다”라는 주장에는 그러한 중심 근거가 결여되어 있음을 본다. 우선, 이 작품의 노랫말에서 노동요적인 요소를 찾을 수 없다. 노동요가 흔히 지니고 있는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의 구성, 혹은 노동요에 으레 있기 마련인 후렴구 등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¹⁰⁾ 다음으로, 배경설화를 살펴도 마찬가지이다. 선행 연구자들이 주목한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 행위는 ‘땅을 파는 물리적 행위’로 볼 여지보다는 ‘무언가를 기구(祈求)하는 신성한 목적을 지닌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가 시키는 대로 왕을 맞이할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염원을 담아 부른 노래라면, 이것은 노동요라기보다는 ‘기원의 노래, 즉 주술요’로 규정하는 것이 적확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8) 이가원, 『조선한문학소사(朝鮮漢文學小史)』, 삼화출판사(三和出版社), 1973, 34면.

9) 조용호, 『풍요기원 노래로서의 <구지가> 연구』, 『서강인문논총』 제27집, 서강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0, 361면.

10) 노동요의 일반적 모습은 다음과 같은데,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노동에 대한 내용 등도 나타남을 본다.

(메기는 소리) 오호 지저매	(받는 소리) 오호 지저매
(메기는 소리) 이 집터를 잡아주기	(받는 소리) 오호 지저매
(메기는 소리) 오호 지저매	(받는 소리) 오호 지저매
(메기는 소리) 끈은 낡은 굵다듬어	(받는 소리) 오호 지저매
(메기는 소리) 냇 모에 기둥 놓고	(받는 소리) 오호 지저매
<안동의 달구소리, 『안동문화권학술조사보고서』, 성균관대국문학과, 1967.>	
(메기는 소리) 이여도하라	(받는 소리) 이여도하라
(메기는 소리) 이여도하라 울음이여도하라	(받는 소리) 이여도하라 이여도하라
(메기는 소리) 굴묵냥의 방에로고나 요방애를 보난두어 이여도하라 으음으음	
<김영돈, 『제주의 민요』, 민속원, 1993, 454면.>	

2. 주술요로서의 <구지가>

이런 자각에서 위 주장에 대한 회의적 연구 결과들이 적지 않게 도출되었다. 새로운 연구들은 ‘굴봉정찰토(掘峰頂撮土)’가 ‘하늘에서 신이한 존재를 내려주기 전에 그의 출현을 기구(祈求)하는 마음에서 했던 행동’임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구지가는 하늘에 대한 기원을 본질로 하는 주술요”라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있는 선학들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밑줄은 필자)

김종우[1974] “掘峰頂撮土” 이것은 어떠한 일을 말하는 것일까? 峰頂을 파헤치고 그 흙을 모아 놓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神君을 맞이하기 위한 祭壇의 形成過程을 形象化함이니… 龜旨峯은 前述한 바와 같이 神君이 下降할 聖스러운 場所이기 때문에 祭壇을 衆人들이 만드는 過程을 敍述한 것에 不外하다 하겠다.¹¹⁾

김승찬[1975] 「掘峰頂撮土」를 풀이하면, 「峯頂을 파서 흙을 집다」 또는 「峯頂을 파서 흙을 모으다」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중에서 후자를 택한다면, 峰頂의 흙을 파서 탄강신이 내려 앉을 神座를 흙으로 모아 만든다고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¹²⁾

박진태[1982] ‘掘은 ‘파다’만이 아니라 ‘우뚝한 모양’이라는訓도 있으므로 ‘掘峯頂은 ‘봉우리 꼭대기 흙을 파서 祭壇을 우뚝하게 쌓고’로 풀이함이 타당하다. … ‘撮土’는 ‘손으로 黃土(朱土)를 집어 祭壇 주위에 뿌린다는 뜻으로 풀이해야 옳다.’¹³⁾

오태권[2007] “掘峯頂撮土”의 해석 문제이다. 「가락국기」의 문면이 封禪祭를 행하고 있는 사실의 표현임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 북구지봉의 산정을 파서 흙 한줌을 모았다는 것은 坎과 壇을 만드는 것¹⁴⁾

어강석[2015] 희생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큰 불이 필요하다. … 소머리와 같은 희생을 모두 태워야 하기 때문에 화톳불이 크게 필요한 것이다. … 번시를 하던 ‘단(壇)’

11) 김종우, 『항가문학연구』, 선명문화사, 1974, 186면.

12) 김승찬, 『구지가와 그 배경의 연구』, 『문리과대학논문집』 제14집, 인문사회학원,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75, 28면.

13) 박진태, 『구지가신연구』, 『한국어문논집』 제2집, 한사대 한국어문연구소, 1982, 123~124면.

14) 오태권, 『구지가 서사의 봉제기능(封祭機能)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26집, 열상고전연구회, 2007, 547면.

은 ‘흙을 높이 쌓아 올려서 만든 것’이다. 바로 ‘굴봉정찰토(掘峰頂撮土)’를 하는 것이다. 즉, 하늘에 올리는 제례(祭禮) 중에서 제일 먼저 강신(降神)을 하는 번시(燔柴)를 행하며, 그것을 하기 위해 먼저 ‘봉우리의 흙을 파고 긁어모아 화톳불을 놓을 장소를 마련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¹⁵⁾

이들의 진술에서 눈에 띄는 공통점은 ‘굴봉정찰토(掘峰頂撮土)’ 행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요’로 파악하던 연구자들은 ‘掘峰頂撮土’에서 행위를 나타내는 한자를 ‘굴(掘, 파다)’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이 시각의 연구자들은 ‘굴(掘)’뿐만 아니라 ‘찰(撮, 모으다)’ 또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즉, ‘굴봉정찰토(掘峰頂撮土)’를 2개의 구(句)로 인식하여 ‘산 정상’의 흙을 파[掘峰頂]서, ‘흙을 모으[撮土]’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다.

이 해석은 필연적으로 ‘흙을 모으는 행위’의 의미 추정으로 이어졌고, 결국 모두 제의를 위한 단(壇)을 쌓는 행위라는 결론에 이른다. 다만 단(壇)의 용도는 달라서 초기의 연구자인 김종우와 김승찬의 경우에는 ‘신이 내려와 앉을 자리인 신좌(神座)’로 보았고, 박진태와 오태석의 경우에는 ‘제물을 배설(排設)하고 제사를 지내는 단(壇)’으로 보았으며, 최근의 어강석은 ‘희생을 태울 단(壇)’으로 보고 있다.¹⁶⁾

15) 어강석, 『한문학적 관점으로 본 <구지가>의 재해석』, 『정신문화연구』 38권 제1호(통권13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273~274면.

16) 이외 ‘굴봉정찰토(掘峰頂撮土)’를 어떤 행위들을 상징적으로 모방한 제의적 행위로 본 연구자도 적지 않다.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거북의 흉내]

“掘峰頂撮土”에 대해서는 또 다른 見解를 筆者로서 갖는 바이다. 卽 이것은 龜totem 社會의 祭祀에서 나타난 擬作態를 보인다. <황폐강, 『龜何歌放』, 『국어국문학』 제29집, 국어국문학회, 1965, 39면.>

龜背峯上을 파고 撮土를 한다니까 農耕과 어떠한 關係가 있는 것같이 說明하는 분도 있으며, 巫俗과 關係가 있는 것으로 보는 분도 있으나, 이것은 巫俗 또는 農耕의 勞動과는 全然 關係가 없는 것으로 單純히 거북의 産卵過程을 模擬한 데 不過한 것이다. <변덕진, 『구지곡에 대하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6권 1호 1970, 93면.>

[알 수 없는 어떤 흉내]

그것은 막대기로 해안을 두드린다거나 항아리를 치는 행위와 꼭 마찬가지로 성격의, 『꼭대기 흙을 파서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는』 제의적 드로메나로서의 행위인 것이다.<성기욱, 『<구지가>의 작품적 성격과 그 해석(2)』, 『배달말』 제12집, 배달말학회, 1987, 145면.>

[매개물에 대한 학대 행위]

이러한 해석과 분석은 <구지가>의 서사문맥에 적절히 조응되고 있음을 본다. 경건한 마음으로 ‘찰토(撮土, 흙을 모음)’¹⁷⁾하며 노래로 ‘머리를 내어 달라’는 기도를 하였고, 그렇게 하자 ‘수로(首露, 머리를 냄)’라는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행위는 제의적 행위이고, 이때의 노래는 주술요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해석과 주장은 ‘구지가는 주술요이다’란 명제를 명확히 성립시킨 것이기는 하지만, ‘구지가는 노동요이다’라는 주장을 완전히 구축(驅逐)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산 정상의 흙을 파고 제단을 쌓는 행위’로 보는 경우에도 ‘구지가는 노동요이다’라는 명제는 여전히 성립하기 때문이다. 즉, ‘수로(首露)’를 바라며 제단을 쌓으면서 부른 노래는, 노랫말의 내용으로 본다면 기원의 노래가 분명하지만, 수반되는 행위의 기준에서 본다면 흙을 파고 쌓는 데 부른 노동요라 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마치 무덤을 다질 때 부르는 방아 노래나, 건축을 할 때 부르는 노래가 노동요로 분류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입문용 사전류에서는 ‘구지가는 노동요이다’라는 명제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채, 여전히 다음과 같이 절충적인 말로 이 노래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고대 가요 중 하나로,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집단 무요이다. … 4구체의 가요로 임금을 맞이하길 기원하는 민중의 노래로, 무가적이고 주술적이며, 노동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구인환, 『Basic 고교생을 위한 문학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2006.>

문학사적 의의: 주술성을 지닌 현전 최고의 노동요.

<배규범·주옥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고전문학사』, 도서출판 하우, 2010.>

“掘峯頂撮土”로 매개물에 대한 학대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것. <이영태, 『구지가의 수록경위와 해석의 문제』, 『한국학연구』 제10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94면.>

17) “撮土 찰토: 흙을 쓸어 모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찬, 『한한대사전(韓韓大辭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3, 제5권 110면.

“撮土: 흙을 모음[謂聚土而取之]” <나죽풍(羅竹風) 主編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 제6권, 상해사서출판사(上海辭書出版社), 2008, 869면.>

3.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의 해석과 노동요로서 자질 판별

그런데 필자는 <구지가>를 노동요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에서 ‘찰토(撮土)’는 분리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많은 자료들에서 ‘찰토(撮土)’는 ‘초월적 존재와 소통하는 말(기원 및 축도의 말)’ 앞에 놓이는, 특수한 행위를 담은 어휘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구지가>의 서사 문맥은 다음

너희들은 모름지기 掘峯頂撮土하고 노래를 부르기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라고 하고, 뛰면서 춤을 추어라.

와 같이 “찰토(撮土) + 초월적 존재와의 소통[기원의 말 = 구지가]”로 되어 있는데, 아래 예문들에서도 흡사한 구조에서 ‘찰토(撮土)’가 등장함을 보는 것이다.

[예문 1]

삼장법사는 저쪽에서 흠을 모아 향으로 삼아(撮土爲香)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손오공은 구름을 멈추고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어 보았다. 삼장법사는 합장하며 하늘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다.

“구름과 노을 위 여러 신신님들과
육정육갑과 여러 하늘의 신들께 기도합니다.”¹⁸⁾

[예문 2]

경량은 붓을 잡아 벽 위에 4구의 시를 지었다. 그리고 흠을 모아 향으로 삼아(撮土爲香) 하늘을 바라보며 네 번의 절을 했다. “가련하다 천금의 규수여, 남가 일몽의 사람이 되도다”¹⁹⁾

18) 那長老正在那裡撮土爲香 望空禱祝 行者且停雲頭, 聽他禱祝甚的, 那長老合掌朝天道。 “祈請雲霞衆位仙, 六丁六甲與諸天” <오승은(吳承恩, 1500~1582), 『서유기(西遊記)』 제75회>

[예문 3]

삼장법사는 또 흙을 모아**〔撮土〕** 기도를 했다. “호걸님들, 고발하실 때는 손으로
공만 고발하십시오. 저팔계랑 사오정과도 상관없는 일입니다.”²⁰⁾

그렇다면 우리는 위 세 개의 예문들에서 보이는 ‘찰토(撮土)’의 의미가 바로
<구지가>의 기술자(記述者)가 의도한 그 뜻이라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위 예문 모두에서 찰토(撮土)는 동사로 사용되며 관용적으로 ‘기원의 말’을
이끈다는 점²¹⁾과 <구지가>의 ‘찰토(撮土)’가 바로 이와 동일한 구조에서 출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하겠다.

이제 이를 보다 확대하여 검토해보기로 하자. 우리는 위에서 보았던 ‘撮土
〔爲香〕’뿐만 아니라 ‘찰토분향(撮土焚香)·염토분향(捻土焚香)·염토위향(捻
土爲香)’까지 확대해서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다. ‘찰(撮)’과 ‘염(捻)’은 손가락
으로 잡는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상통하는 자(字)인데, 사전류에서도
이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모두 ‘초월적 존재와의 소통[기원, 축도 등]을 위해
“향로(香爐)를 대용할 작은 흙더미를 쌓다”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19) 京娘取筆題詩四句于壁上 撮土爲香, 望空中拜了四拜 … “可憐閨秀千金女 化作南柯一夢人”
<풍몽룡(馮夢龍, 1574~1646), 『경세통언(警世通言)』 제21권>

20) 三藏眞個又撮土禱告道 “好漢告狀 只告行者 也不干八戒 沙僧之事” <오승은(吳承恩, 1500~
1582), 『서유기(西遊記)』 제56회>

21) 문헌에서 보이는 ‘찰토(撮土)’의 의미는 2가지로 대별(大別)된다. “흙을 모으다”란 의미가
하나이고, “한줌의 흙”이란 의미가 다른 하나이다. 이 둘은 “흙을 손으로 움켜 잡다〔撮〕”는
공통분모를 지니는데, 전자는 동사적으로 쓰이는 것이고, 후자는 명사적으로 쓰이는 것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용례들은 본문에서 다루고 있듯이 ‘작은 흙더미를 쌓아 향로를 대신하다’이
고, 후자의 대표적인 용례들은 다음에서 보이듯 ‘작은 양의 대유’이다.

“지금 저 땅은 한줌의 흙이 많아진 것인데, 그 넓고 두터움은 화악을 이고 있으면서도 무거
워하지 않고, 하해를 흐르게 하면서도 새지 않고, 만물이 실려 있다.” (今夫地 一撮土之多 及
其廣厚 載華嶽而不重 振河海而不洩 萬物載焉)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6장>

한 줌의 흙이 우뚝한 산을 쌓고 撮土積嶽

한 잔의 물이 질퍽한 강을 이루지 勺水成澌

<박은(朴淵, 1479~1504), 읍취현유고(挾翠軒遺稿) 권1, 오언고시(五言古詩), 송이택지조연
지행(送李擇之朝燕之行)>

《염토위향(捻土爲香) · 찰토분향(撮土焚香) · 염토분향(捻土焚香)》

[撮土]

- 흙을 쓸어 모음. <단국대학교 편찬,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22)
- 손으로 흙을 집어 모아 흙더미를 만드는 것. 옛 시절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야외에서 향로를 대체하여 향을 피웁으로써 신을 모시던 일을 지칭함(用手把土聚攏成堆. 指舊時迷信的人在野外撮土代替香爐, 燒香敬神.) <중국 바이두 백과사전>23)

[捻土爲香]

- 흙가루를 집어 향(香)으로 삼음. 미처 향을 준비하지 못하여 이로써 정성을 표시하는 것을 이른다. <단국대학교 편찬,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24)
- 흙으로 향을 만들. 향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정성을 표시함(捏泥成香. 因不及備香 以此表示虔誠.)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25)

[撮土焚香]

- 손으로 흙을 집어 모아 흙더미를 만드는 것. 옛 시절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야외에서 향로를 대체하여 향을 피웁으로써 신을 모시던 일을 지칭함(用手把土聚攏成堆. 指舊時迷信的人在野外撮土代替香爐, 燒香敬神.) <중국 바이두 백과사전>26)

[捻土焚香]

- “염토위향”과 같다[同 “捻土爲香”]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27)

결국, ‘찰토(撮土)’는 ‘염토(捻土)’와 같은 것으로, 공히 야외에서 성의 있는 기도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향로 대용의 흙더미를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어휘라고 하겠다. 한편, 위의 사전적 정의를 뒷받침하는 문헌적 용례는 매우 많다. 그리고 다음 자료들은 흙을 모아 만든 더미가 ‘향로’만을 형상한 것인지, ‘향로’와 ‘향’ 모두를 형상한 것인지 등에 대한 세밀한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2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단국대학교출판부, 2003, 제5권 110면.

23) 바이두(<https://baike.baidu.com>)에서 검색어를 “撮土焚香”으로 함.

2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단국대학교출판부, 2003, 제6권 1263면.

25) 나죽풍(羅竹風) 主編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 제5권, 상해사서출판사(上海辭書出版社), 2008, 695면.

26) 바이두(<https://baike.baidu.com>)에서 검색어를 “撮土焚香”으로 함.

27) 나죽풍(羅竹風) 主編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 제5권, 상해사서출판사(上海辭書出版社), 2008, 695면.

삼장법사가 분부했다. “오공아, 향과 초를 가져오너라. 내가 기도를 드리고 경을 읽게.” 손오공은 주둥이를 쭉 내밀고 투덜거렸다. “정말 답답하시네요. 이 산 속에 어디 마을이 있나요. 아님 가게가 있나요? 어디서 향과 초를 가져오란 말씀이세요? 돈이 있어도 사을 데가 없다고요.” 삼장법사는 화가 나서 말했다. “저리 비켜라, 원숭이놈아. 내가 撮土焚香 하여 축도를 드릴 테니.”²⁸⁾

<오승은(吳承恩, 1500~1582), 『서유기(西遊記)』 제14회>

“하늘이시여. 저 가인(賈仁)이가 궁핍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사당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나는 향이 없으니까 그냥 捻土爲香 하여 신령님께 빌어가지²⁹⁾

<정정옥(鄭廷玉, 1251~?), 『간전노(看錢奴)』 제1절>

위의 자료를 보자면, ‘撮土(捻土)’는 향로뿐 아니라 향의 역할까지 하는 흙더미를 만드는 행위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용례 모두에서 ‘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撮土焚香·捻土爲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撮土’와 ‘노동 행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 필자는 위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구지가>에 나타난 ‘굴봉정찰토(掘峯頂撮土)’는 ‘봉우리를 파고 흙을 모아 향로 대용의 작은 흙더미를 만드는 행위’를 기술한 것이라 판단한다. 주지하다시피 향은 지상과 신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신을 즐겁게 하는 신물(神物)의 하나이다. 그렇기에 기도를 할 때면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별도의 예를 들 것도 없을 정도이지만, 다음의 예는 <구지가>와 강한 친연성을 맺고 있는 노래에서 등장하는 분향(焚香)이라는 점에서 다시금 주목의 가치가 있다.

28) 三藏叫“悟空 取香燭來 待我禱祝 好念經”行者努著嘴道“好不知趣 這半山之中 前不巴村 後不著店 那討香燭? 就有錢也無處去買”三藏恨恨的道“猴頭過去 等我撮土焚香禱告” <오승은(吳承恩, 1500~1582), 『서유기(西遊記)』 제56회>

한편, 이 예문의 ‘찰토분향’은 어감석이 이미 인용한 바 있다. 이 지문을 통해 그는 ‘撮土’를 “황천(皇天)에 대한 제례과정에서 희생을 태워 강신(降神)을 하는 번시(燔柴)의 자리를 만드는 행위”라 결론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 예문을 포함한 여타의 문헌 근거를 보건대, ‘찰토’는 “희생을 태우기 위한 자리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향로를 대신하기 위해 임시로 몇 줍 흙으로 더미를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파악된다.

29) “天那 兀的不窮殺賈仁也”【做到廟跪科, 云】“我也無那香 只是捻土爲香 禱告神靈可憐見” <정정옥(鄭廷玉, 1251~?), 『간전노(看錢奴)』 제1절>

뜰에다 물을 가득 넣은 두 개의 항아리를 놓고 도마뱀을(蜥蜴)을 잡아다 항아리에 넣는다. 자리를 펴고 분향(焚香)하며, 남자 아이 20인에게 푸른 옷을 입히고 버들가지(柳枝)를 가지고 빌게 하기를,

도마뱀아! 도마뱀아(蜥蜴蜥蜴)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하라.(興雲吐霧)
비를 주룩주룩 오게 하면(降雨滂沱) 너를 놓아 보내겠다.(放汝歸去)

고 하는 것이었다.³⁰⁾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1407년) 6월 21일>

서사의 구조로 볼 때, 위 인용의 ‘분향(焚香)’은 구지가의 ‘촬토(撮土)’ 바로 그 위치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정황까지 감안할 때, 구지기에 나타난 ‘촬토(撮土)’의 의미는 자명해진다. ‘촬토(撮土)’는 바로 ‘(향로의 대응으로) 흙더미를 모으다’의 의미이다.

이제 우리는 <구지가>에서 보이는 ‘굴봉정촬토(掘峯頂撮土)’란 구절에서 노동요적인 성격이 있는가를 판별할 때가 된 듯하다. 필자는 이 구절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구지기를 노동요’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한다. ‘굴봉정촬토(掘峯頂撮土)’의 실질적인 의미가 “한줌 흙으로 향로 대응의 흙더미를 만드는 행위”임을 확인한 이상, 이를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과 연관 지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굴봉정촬토(掘峯頂撮土)’는 ‘노동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구절이 아니라, ‘주술요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해 주는’ 구절이라 하겠다.

III. 결론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간 학계 및 교육 현장에서는 <구지가>를 ‘노동요’로도 보고 있었다. 이 노래를 노동요라고도 보는 이유는 배경설화에서 나온 ‘굴봉정촬토(掘峯頂撮

30) 置盛水二甕於庭 捕蜥蜴納之甕中 設席焚香 令童男二十人衣青衣 持柳枝祝曰 “蜥蜴蜥蜴 興雲吐霧 降雨滂沱 放汝歸去” 既二日不得雨.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1407년) 6월 21일 계묘(癸卯)>

土)’란 구절 때문이었다. 기존의 해석에 따를 때 이 구절은 ‘산꼭대기의 흙을 파다’ 혹은 ‘산꼭대기를 파고 흙을 모으다’로 해석되었다. 흙을 파거나, 흙을 모으는 행위에서 노동의 현장을 상정하였던 것이고 그에 기반하여 <구지가>가 노동요일 가능성을 제기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중국의 문헌들과, 우리의 문헌에 나타나는 <석척가(蜥蜴歌)> 등의 용례를 살펴, ‘촬토(撮土)’가 대규모의 흙을 쌓는 행위가 아닌, ‘향로를 대용할, 향로 크기의 한줌 흙더미를 모으는 행위’임을 밝혔다. 이 행위의 규모가 소규모임을 밝혀 동작이 노동이라 부를 만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였고, 이 의미 파악을 통해 오히려 <구지가>가 주술요임을 더 분명히 할 수 있었다.

한편 ‘촬토(撮土)’ 행위 또한 ‘노동의 일종’이라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흙을 모으는 규모에 따라 노동 행위라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술했듯이 어휘의 의미 및 행위의 정황으로 볼 때 ‘촬토(撮土)’는 노동이라 부르는 어렵다고 본다. 우선 어휘 자체가 지니는 의미로서의 ‘촬토(撮土)’ 혹은 ‘염토(捻土)’는 한줌 흙, 즉 소량의 흙을 칭할 때 사용한다. 손으로 바로 쓸어 모을 정도의 크기이다. 이 행위에 수반된 노래를 ‘노동의 현장, 일의 현장’에서 불리는 ‘노동요’라 칭하기는 어렵지 않나 한다. 행위의 정황을 보아도 노동요라 보기 어렵다. 본론에서 다루었듯이 삼장법사가 촬토(撮土)하거나 경량이 촬토한 것은 모두 기도에 앞서 있었던 행위이다. 이 행위는 ‘기도의 정황’에 결부되는 것이지 ‘노동의 정황’에 결부된 것이 아니다. 즉, ‘분향(焚香)’ 차원의 주술적 행위인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며 결론으로 삼는다.

참고문헌

1. 자료

- 사서연역회(史書衍譯會) 번역, 『삼국유사』, 유명한(柳明韓) 발행, 고려문화사, 1946.
- 고전연역회(古典衍譯會) 번역, 『완역 삼국유사』, 이종렬(李鍾烈) 발행, 학우사, 1954.
- 이병도 번역, 『삼국유사』, 동국문화사(東國文化社), 1956.
- 이병도 번역, 『삼국유사』, 동국문화사(東國文化社), 1965.
- 이병도 번역, 『한국명저대전집 삼국유사』, 대양서적(大洋書籍), 1972.
- 이병도 번역, 『원문검역주 삼국유사』, 광조출판사(廣曹出版社), 1973.
- 이재호 번역, 『삼국유사 (상)』, 명지대학자유교양연구소, 광문출판사(光文出版社), 1967.
- 이동환 번역, 『삼국유사(상)』, 삼중당문고(三中堂文庫), 1975.
- 권상로 번역, 『삼국유사』, 동서문화사(東西文化社), 1978.
- 이재호 번역, 『명지대학문고 11 삼국유사 (중)』, 명지대학출판부, 1978.
- 이민수 번역, 『삼성문화문고 127 삼국유사(상)』, 삼성미술문화재단, 1979.
- 성은구 번역·이을호 감수, 『삼국유사』, 전남대학교출판부, 1981.
- 박성봉·고경식 공역, 『역해 삼국유사』, 서문문화사, 1985.
- 이민수 번역, 『삼국유사(상)』, 범우사, 1986.
- 강인구 외 번역, 『역주 삼국유사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3.
- 맹한경(孟漢卿), 『마합라(魔合羅)』.
- 정정옥(鄭廷玉), 『간전노(看錢奴)』.
- 오승은(吳承恩), 『서유기(西遊記)』.
- <http://chengyu.kxue.com>
- <https://baike.baidu.com>
- ### 2. 단행본
- 강승원 외, 『고전문문』, 『해법문학』(2009개정교육과정, 천재교육, 2016.
- 구인환, 『Basic 고교생을 위한 문학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2006.
- 김명준, 『생각하며 읽는 한국 고전시가』, 도서출판 다운샘, 2018.
- 김종우, 『향가문학연구』, 선명문화사, 1974.
- 배규범·주옥파, 『외국인을 위한 한국고전문학사』, 도서출판 하우, 2010.
- 양주동, 『고가연구』, 박문서관, 1942.

이가원, 『조선한문학소사(朝鮮漢文學小史)』, 삼화출판사(三和出版社), 1973.

정형용, 『국문학사』, 우리어문학회, 수로사(秀路社), 1948.

조운제, 『국문학사』, 동방문화사(東邦文化社), 1949.

3. 논문

김성연, 「구지가의 해석」,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82~90면.

_____, 「구지가재고 - 기우의식(祈雨儀式)과 관련하여」, 『논문집』 제13집, 동아대학교 대학원, 1988, 29~38면.

김승찬, 「구지가와 그 배경의 연구」, 『문리과대학논문집』 제14집, 인문사회과학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75, 21~40면.

김열규, 「향가의 문학적 연구 일반」, 『향가의 어문학적연구』(김열규, 정연찬, 이재선 공저), 서강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972, 1~54면.

김영봉, 「가락국기(駕洛國記)의 분석과 구지가의 해석」, 『연민학지(淵民學志)』 제5집, 연민학회, 1997, 31~51면.

박지홍, 「구지가 연구」, 『국어국문학』 제16집, 국어국문학회, 1957, 3~17면.

박진태, 「구지가신연구」, 『한국어문논집』 제2집, 한사대 한국어문연구소, 1982, 119~135면.

변덕진, 「구지곡에 대하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6권 1호 1970, 87~166면.

성기욱, 「<구지가>의 작품적 성격과 그 해석(1)」, 『울산어문논집』 제3집,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87, 55~77면.

_____, 「<구지가>의 작품적 성격과 그 해석(2)」, 『배달말』 제12집, 배달말학회, 1987, 123~157면.

어강석, 「한문학적 관점으로 본 <구지가>의 재해석」, 『정신문화연구』 38권 제1호(통권13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247~280면.

오테권, 「구지가 서사의 봉제기능(封祭機能)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26집, 열상고전연구회, 2007, 521~557면.

이영태, 「구지가의 수록 경위와 해석의 문제」, 『한국학연구』 제10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81~94면.

조용호, 「풍요기원 노래로서의 「구지가」 연구」, 『서강인문논총』 제27집, 서강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0, 323~368면.

황패강, 「구지가고」, 『국어국문학』 제29집, 국어국문학회, 1965, 21~48면.

Characteristics of "Gujiga" in Consideration of "Gulbongjeongchwalto"

Park, Jae-min

This paper reconsiders of the characteristics of "Gujiga", a well known ancient song. "Gujiga" has been regarded as a spell or a labor song. It contains wishes and resulted in a magical phenomenon in fact, so it was considered as a spell. On the other hand, it was associated with labor songs because of the phrase, "*gulbongjeongchwalto*" in it. Based on the existing interpretations, scholars interpreted the phrase as "to dig in the ground on the top of the mountain" or "to dig in the top of the mountain and to pile the soil". The act of digging in the ground or piling the soil got associated with work fields, so "Gujiga" could be regarded as a labor song.

However, This paper made clear that "*chwalto*" is not to heap the earth in a big scale but to pile a handful of soil as a substitution of an incense burner, having no relationship with something to be called a labor. To prove this, I consulted various Chinese literature and investigated the idiomatic usage of "*chwalto*"(to pile a handful of soil), which was associated with "*banbyeng*"(to burn incense) and "*gion*"(to pray), which exactly corresponds with the context of "Gujiga". Thus I conclude that "*gulbongjeongchwalto*" is not an evidence that proves "Gujiga" is a labor song but a motif associated with a spell.

keywords: Gujiga, labor song, magic song, chwalto, gulbongjeongchwalto, ritual for rain

접수일자: 2018. 9. 30. 심사기간: 2018. 10. 1.~2018. 11. 10. 게재결정: 2018. 11. 10.
